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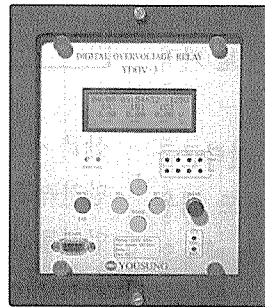
# 회원사동향

## (주)유성계전, 3상 디지털 과전압(조상용 콘덴서 보호용) 계전기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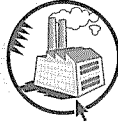
벤처기업이며 유망전력 벤처기업체인 (주)유성계전(대표 이진락)은 지난 7월 한국전기연구소에서 “조상용 콘덴서 보호용 3상 디지털 과전압 계전기” 개발시험을 통과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내최초로 연구개발하여 개발시험을 통과한 “3상 디지털 과전압 계전기”는 전력설비 고장시 발생하는 과전압에 의해 동작하는 계전기로써 특히, 고압 및 특고압선로에 사용하는 조상용 콘덴서(Static Condenser) 보호방식중 차동전압방식으로 사용하는 보호방식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계전기로서

- 완전 연산형 디지털 계전기
- Multi Processor 구조의 설계
- 통신포트를 이용한 상태 모니터링
- 20×4 Dot Matrix LCD를 이용한 문자 Message 출력으로 각종 설정값 및 동작상태 확인이 용이



- Test Trip 기능보유에 따른 연동시험의 편리성 도모
- 순시트립 기능
- IEC 규격에 따른 정한시 및 반한시 특성 구현
- 한시 예비 알람(PREAlarm) 으로 한시요소 동작이전에 고장 가능성을 알려주는 기능 구비
- 사고시 각종 Event 및 고장 파형의 저장 (Fault Recording기능)
- 자기진단 상시 감시 기능
- Draw-out type(인출형)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3상 디지털 과전압 계전기의 앞서는 제품개발로 전력보호 시스템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전력계통 시스템과 전력보호기기 국산화에 더욱 정진하여 송도 산업정보연구단지에서 주역할을 감당키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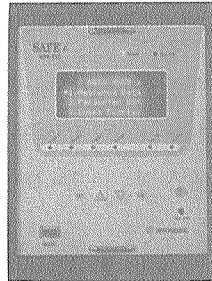
## 회원사동향

### 효성, C-GIS용 디지털 보호계전기 개발

(주)효성(대표 이돈영)이 25.8kV C-GIS용 디지털 보호계전기(제품명 HPR-OC)를 개발, 최근 현장실증시험을 마치고 조만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 제품은 (주)효성 중공업연구소에서 1년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지난 2월 개발을 완료하고 한전 변전소에 4개월간 제품을 설치해 성능을 검증받았다.

신희승 (주)효성 중공업연구소소장은 “이제품은 디지털 기술을 집약해 개발한 제품으로 초기 설계 과정에서부터 주 수요처인 한전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요처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구비한 최신 보호계전기”라고 설명했다.



이제품은 25.8kV C-GIS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아날로그 보호계전기에 비해 조작이 편리하고 유지보수가 쉬우며 수 배전반에 사용되는 계측기와 보호계전 기능을 하나로 통합, 고장데이터 뿐

만 아니라 기기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저장해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통신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원방감시·제어기능이 뛰어나다.

(주)효성 관계자는 “한전에 공급중인 25.8kV C-GIS 판넬에 이제품을 설치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현대중공업, 이스라엘 NPO사, 중동지역 시장 확대 계기 마련

현대중공업(대표 최길선)은 최근 이스라엘의 NPO사(Noga Paz Omega)로부터 15MW급 디젤 발전설비 제작, 설치공사를 일괄수행(Turn-Key) 방식으로 수주했다.

이공사는 중형 디젤엔진을 이용해 사업장이나 중소도시에 공급할 목적으로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토목공사에서부터 8,000kW급 발전용 엔진 2기를

포함한 제반 기자재 제작·설치부터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하게 된다.

현대중은 계약과 동시에 제작에 들어가 2003년 11월까지 이스라엘 하이파(Haifa)시에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민간 발전사업자인 NPO는 5만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전력을 생산, 인근지역에 공급하게 된다.



## 회원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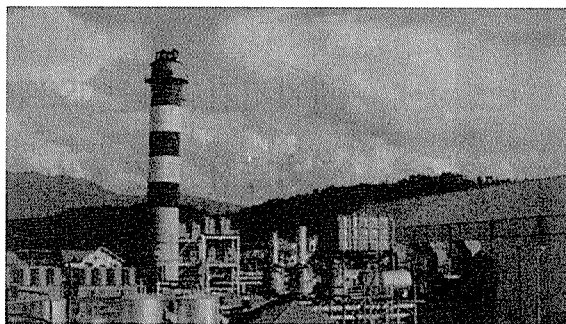
이번 수주 과정에서 현대중 관계자는 “와실라(Wartsila)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디젤발전설비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며 “발주처의 사업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입수,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해 신뢰도를 높인 것이 수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현대중은 NPO사와 후속 수주상담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수주로 중동지역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말레이시아, 모리셔스(남부 아프리카)에서 같은 형태의 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을 내세워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국가와도 수주를 위한 접촉빈도를 늘리는 등 최근 들어 부쩍 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

참고로 디젤발전설비는 화력 또는 수력발전설비

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나며, 대형엔진의 동력을 이 용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청정설비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대형디젤엔진 뿐만 아니라 부대공사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세계 엔진생산 업체들이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는 핵심사업 분야이기도 하다.



## LG전선, 앙골라 심해유전 프로젝트 760만불 납품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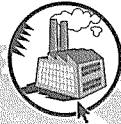
LG전선(대표 한동규)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앙골라 인근 해역 심해유전 개발 프로젝트인 Kizomba 'A'에 사용될 해양용 케이블 760만불을 수주했다. 국내업체로는 유일하게 케이블 공급업체로 선정된 LG전선은 현대중공업과의 Co-working을 통한 수입대체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Kizomba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의 석유업체인 미국 엑슨모빌(Exxon Mobil)이 추진하고 있는 앙골라 인근 해역의 심해유전 개발 프로젝트로, LG전선

의 IEEE 45Type 'P'는 이번 공사에 구축될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설비에 사용된다.

LG전선은 지난 99년, 난연성, 내유성, 유연성이 뛰어난 해양용 난연케이블 Type 'p'를 개발, 국제 공인 인증기관인 ETL(미국) 인증과 선급기관인 ABS(America Bureau of Shipping)인증, USCG(미 해안경비대) 인증을 획득해 이미 국제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주를 이끌어 낸 정은택 상무는 “지속적인



## 회원사동향

품질인증 획득 및 판매확대 활동으로 BICC(영), BIW, Americable, Rockbestos 등 해외유수의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공급자로 선정돼 향후 국내외 해양 관련 프로젝트 수주의 기반과 경쟁우위를 확보한 데 그 의의가 크다"며 "특히 최대 오일 메이저인 엑스

모벨사의 대형 프로젝트에 납품함으로써 선주들로부터의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비슷한 규모로 예상되는 후속 프로젝트, Kizomba 'B' 프로젝트 진행 시에도 추가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 대한트랜스, 네온변압기 미국 첫 수출

변압기 전문 생산업체인 대한트랜스(대표 김봉균)가 미국의 액타운사에 네온변압기를 처녀 수출했다. 김봉균 사장은 "이번 1차 공급은 지난해 수출 계약을 체결한후 처음 선적한 것으로 다음주부터 매주 4개 컨테이너 12억4천만원규모의 물량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대한트랜스가 지난해 10월 미국의 액타운사에 7만5천대(200만달러 상당)의 네온 변압기 수출계약을 체결한후 처음으로 이뤄진것이다.

이번에 수출되는 네온 변압기는 UL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새로운 타입의 절연재인 몰당액을 사용해 수명이 길어졌으며, 누전시 감전 위험을 없애기 위해 내부에 안전장치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김봉균 사장은 "미국의 액타운사 관계자들이 이제 품을 수입하기 위해 7월중순 공장을 방문해 샘플링 테스트를 마쳤으며, 수출품도 미국에 도착해 전수 조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트랜스는 현재 국내 변압기 시장의 물량축소와 업체간 과당경쟁이 심해져 소형 네온변압기와 강압기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강압기의 일종인 링 변압기를 수출하고 있다.

대한트랜스는 지난 98년 70-80억원하던 매출이 30억원대로 떨어져 한때 부도위기를 겪었으나 그동안 꾸준히 신제품 개발에 매진, 네온 변압기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2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완전 정상화 됐다.

### 일진전기, 신 IEC 규격 가스절연개폐장치 국내 최초 개발

일진전기(대표 홍순갑)는 국내 최초로 신 IEC (IEC 62271-100) 규격을 적용한 72.5kV 가스절



## 회원사동향

연개폐장치(gas insulated switchgear)를 개발, 최근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네덜란드 전력시험소(KEMA) 규격 인정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철도 운행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선로상에 고장전류가 발생했을 때 전원을 차단, 전력 계통을 보호해주는 변전소의 핵심 기기다. 전동스프링 조작장치를 채용, 기존 제품 크기와 무게의 70% 정도로 소형·경량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진전기는 이 제품으로 연내에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으로 현재 철도청 입찰을 준비중이며 2004년에는 100억원 이상의 매출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홍순갑 사장은 “향후 신 IEC규격에 맞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시장 수요에 적합한 제품을 적시에 출시, 세계적인 종합중전기 전문업체로 변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케이디파워, 중장기 경영전략 포함 ‘상하이 선언’ 채택

전력벤처기업인 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는 중·장기 비전 및 경영혁신전략 수립을 위하여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협력업체 및 전국지사장 워크숍을 개최한 후 ‘상하이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회사 임직원을 비롯 전국센터·지사장, 협력업체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가,

금년도 영업목표 달성을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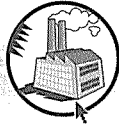
특히 ▲2005년 산업네트워크 분야 최강자가 된다 ▲3년내내 국내 1위 매출군을 3개이상 확보한다 ▲시스템액션 과제군으로 핵심기술확보·마케팅 강화·능력중심 인사·본사 및 지사의 윈-윈 목표로 일심동체가 된다 ▲강한 네트워크 중심의 회사가 되며 고객중심의 융합상품공급으로 고객중심의 융합상

품공급으로 고객중심의 국내 1위가 된다 라는 중장기경영혁신 전략을 포함

한 상하이 선언을 채택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IT를 접목한 100% 디지털화된 Ver5.0i 수배전반을 출시하는 것을 비롯해 지능형 i MCC, i 분전반, i MCCB, i ELD 등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웹기반 전기안전관리서비스 아이켄(i KEN)사업이 본 궤도에 접어들어 국내 종합 중전기 최강자로 부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회원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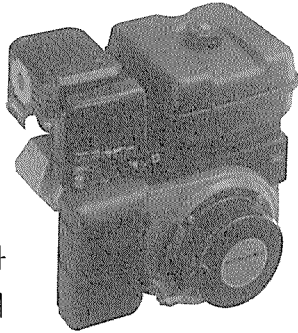
### 보국전기, 일 소형발전기 시판

발전기 전문생산업체인 보국전기(대표 광기영)가 일본의 미쓰비시사의 소형발전기를 국내외시장에 판매한다.

보국전기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미쓰비시와 판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0마력 이하의 소형발전기를 7월말부터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보국전기가 이번에 선보인 소형발전기는 비상 발전용, 산업용, 펌프용으로 용도가 다양하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존 소형 발전기에 비해 가격과 제품의 성능이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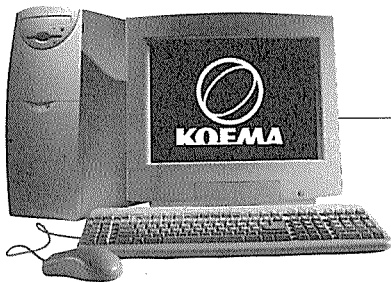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1년이 지나도 출력이 일정할 정도



로 품질이 우수하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보국전기는 이외에도 지난 6월 3일 세계 유수의 엔진 제작업체와 기술 및 판매 계약을 맺고 6천kW급 대형터빈 발전기를 국내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광기영 사장은 "대형 터빈 발전기는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되는 상용발전기"라고 밝히고 "보국전기는 이제 소형에서부터 대형 발전기 생산·판매 시스템을 갖춘 명실공히 발전기 전문 메이커로 거듭 나게 됐다"고 밝혔다.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

